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6·25 64주년 행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7일까지 후보 접수후 컷오프로 3명 압축

새정치 광주·전남 7·30 재보선 공천 일정 어떻게 되나

컷오프 적용 기준 관심...경선시기는 내달 5~6일 유력

여론조사·당원경선 배제 원칙 속 공론선거인단 경선 검토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관위(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후보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 치러지는 4곳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경선 후보 접수=24일 시작된 후보 공모는 27일 마감한다. 자천타천 거론되던 일부 입지자들이 뜻을 접으면서 후보 구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재보궐 선거구에서는 적게는 3~4명, 많게는 7~8명의 입지자들이 경선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관전 포인트는 김효석 전 의원과 전정배 전 의원의 경선 후보 등록 여부, 전정배 전 의원은 광산 을 지역구 출마에 대한 마음을 굳힌 상태로 27일 후보 등록에 나설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김효석 전 의원은 막판까지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역할론에 대한 당내외의 요구가 크지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경선을 치러야 하느냐가 고민 지점이다.

일각에서는 전락공천이나 단수 공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지도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컷-오프(예비경선)=지도부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재보궐선거 공천에 입지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예비 후보를 3명 내외로 압축시켜 최종 경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7일 후보 공모가 마감되면 다음 달 2일까지 컷-오프를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컷-오프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

■ 새정치연합 7·30 재보선 일정

후보공모	6월24~27일
컷-오프	6월28~7월2일
경선	7월5~6일(유력)
재심	7월7~8일
후보확정	7월9일
후보등록	7월10일

다. 지도부에서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있다. 내용은 지난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시행세칙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부 유력 후보들이 컷-오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잡한 계파간의 역학구도를 감안한다면 컷-오프 결과는 상당한 논란을 촉발시킬 전망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공모에 참여했던 일부 입지자들은 컷-오프의 부담감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방식 및 시기=경선 방식과 관련, 당 지도부는 여론조사와 당원 경선은 일단 배제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는 착신 등으로 기득권 세력의

여론 왜곡 가능성이 크고 당원 경선은 구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당원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선호투표 방식을 가미한 공론선거인단 경선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일단 여론조사 등을 통해 공론선거인단을 구성, 패널과 경선 후보들의 토론회를 진행한 뒤, 1위·2위·3위 후보를 정하도록 한다. 선호투표 방식은 공론선거인단 한명이 각각 1위~3위까지 후보들의 이름을 적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개표결과 1위 득표자가 과반이상을 얻는다면 후보자가 확정되지만, 나오지 않을 경우엔 끝까지후보에게 2순위로 기표했던 득표수를 해당 후보에게 나눠 다시 집계할 한다.

하지만, 공론선거인단 선호투표 방식이 번거롭고 실질적인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착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선 시기는 다음달 5~6일이 유력하다. 주말에 경선을 실시한 뒤, 7~8일 재심 과정을 거쳐 9일 최고위에서 후보를 확정하고 10일 후보 등록을 한다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그 어떤 행위예술보다 드라마틱한 축구



김윤영의
‘그림 생각’

(74) 월드컵

“오늘날 축구는 민중의 예술로 성장했다.”

축구전문작가인 크리스토프 바우젠바인은 저서 ‘축구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축구는 자못 극적이어서 예술이상이고, 예술보다 한결 현실적이고 생생하기 때문이라한다. 건 각들이 그라운드의 푸른 공간을 누비며 공을 차는 힘찬 모습은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 어떤 행위 예술보다 더 드라마틱해 공감 이 간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평소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다가도 이렇게 월드컵이 열리면 갑자기 ‘골수 축구팬’이 되어 골 하나에 마음 졸이고 네이마르, 메시 등 새 축구 영웅 탄생에 환호한다. 한국 대표팀에서도 이근호,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에 간절히 월드컵 1승을 기원해 본다.

월드컵의 뜨거운 열정을 작가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다. 팝 아트 조각가 고근호의 ‘전사들’(2006년 작)은 열정



고근호 작 '전사들'(2006년)

에 사로잡힌 축구선수들을 먼 조각한 철판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각각의 전사들은 골키퍼, 드리블한 선수에게 태클거는 모습, 헤딩, 그 어렵다는 오버 헤드 킥과 골 세리머니 등 역동적인 경기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펼쳐고 있다. 우리나라를 등에 짊어지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이 바로 전사들이 아니고 무엇이라. 이 즈음의 태극문양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빠근해진다.

철과 알루미늄 면재를 잘라 절제된 색칠을 한 뒤 조립하는 방식의 팝 아트 조각 작업으로 새 길을 열어가고 있는 작가는 “로봇과 장난감을 좋아하고 아직도 초등학교 근처의 문방구에서 설레인다”고 한다. ‘장난감과 예술의 경계 사이에 모호하게 서있는’ 작가의 팝 아트 조각과 우리 시대 영웅으로 등극한 축구 선수들의 모습은 보고 또 보아도 유쾌하고 재미지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새누리 전국 14곳 7·30 재보선 후보자 접수 마감

호남은 순천·곡성 이정현 前수석 1명

부산 해운대·기장갑 8명 신청 최다

새누리당은 25일 7·30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7·30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사무총장)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현재 확정된 14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대한 공천 접수를 진행한 결과 부산 해운대·기장갑에는 8명이 신청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경기 팽택시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순천·곡성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울산 남구수에 이혜훈 전 최고위원 등이 공천 접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이 7·30 재보선 순천·곡성 지역 공천을 신청했다”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후보 면접 등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에서는 드문 호남 출신 인사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18대를 제외하곤 16대 총선부터 19대까지 광주 서구에만 3번 출마해 내리 고배를 마셨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정부·홍보수석을 두루 거친 핵심 측근으로 역활했고,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는 서울 동작을 출마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결국 호남행을 택했다.

그로서는 ‘삼전사기’ 네 번째 호남 도전으로, 대선을 앞둔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주류 중의 주류’였지만 당선 가능성이 큰 수도권 출마 권유를 뿌리치고 호남행을 택했다.

한편, 공천위는 이날 공천 접수가 마감되면 서류 심사 등에 착수해 다음달 6~7일쯤 공천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he 16th Damyang Bamboo Festival

제16회 담양 대나무축제

천년의 대숲, 세계를 품다

2014 6.27 금 - 6.30 월 4일간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관방제림 일원

주최·주관 | 담양군/(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